

배리어 프리 알아보기

- 장애공감교육 활동지 -

학년

반 번호

이름



배리어 프리(Barrier Free)란 말에 대해 알아보시다.

‘장벽 없는 건축설계(BARRIER DESIGN)’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래한 말로,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·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입니다. 오늘날에는 건축 시설물의 변화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로 적용·확장되어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Barrier(장벽) + **Free(자유로운, 없음)** = 장애인도 **자유롭게** 살아갈 수 있게 **장벽**을 허물자!



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배리어 프리(무장애) 사례를 살펴보고, 연결해봅시다.



보행 장애물이 없는
무장애 버스정류소

보행약자를 위한
등산로 ‘자락길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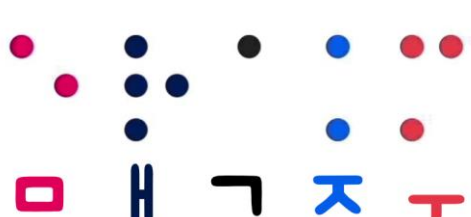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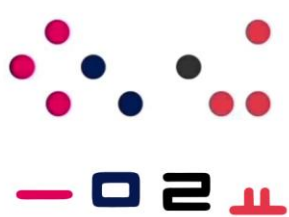
배리어프리 영화
(시각-음성화면해설,
청각-한글자막)

무장애통합놀이터
‘꿈틀꿈틀 놀이터’



일상 속에는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있어요. 누구를 위한 배려일까요?

캔 음료에도 배려가 숨어 있다는 사실!



〈누구를 위한? 어떤 배려?〉

우리나라 모든 캔 음료와 맥주에는 ()인을 위한 배려의 ()가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? 하지만! 어떤 음료나 맥주인지는 알 수 없어요. 무슨 음료인지 이름도 점자로 적혀 있다면 더 좋겠어요. 여러분도 캔 음료를 마실 때 배려의 점자를 읽어보세요!



우리 학교에도 다양한 배려들이 숨어 있어요.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?



평등과 공정의 관점 배리어 프리 적용하기

- 장애공감교육 활동지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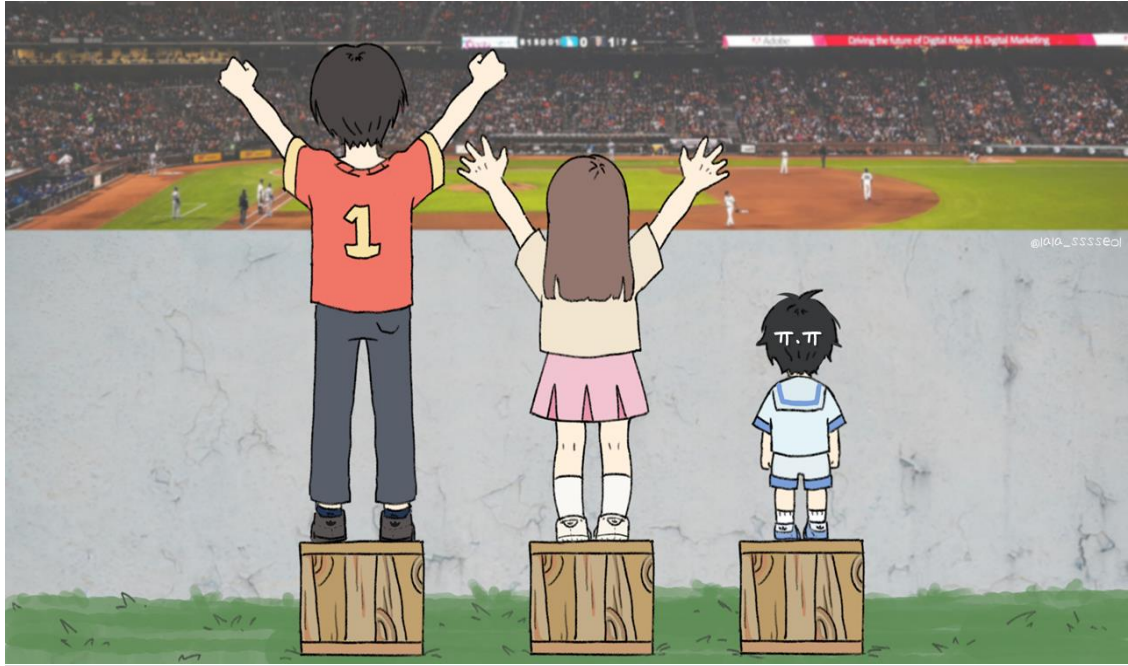
학년

반 번호

이름



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 관람을 하고 있어요.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야구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모 칸 안에 그림으로 나타내어 봅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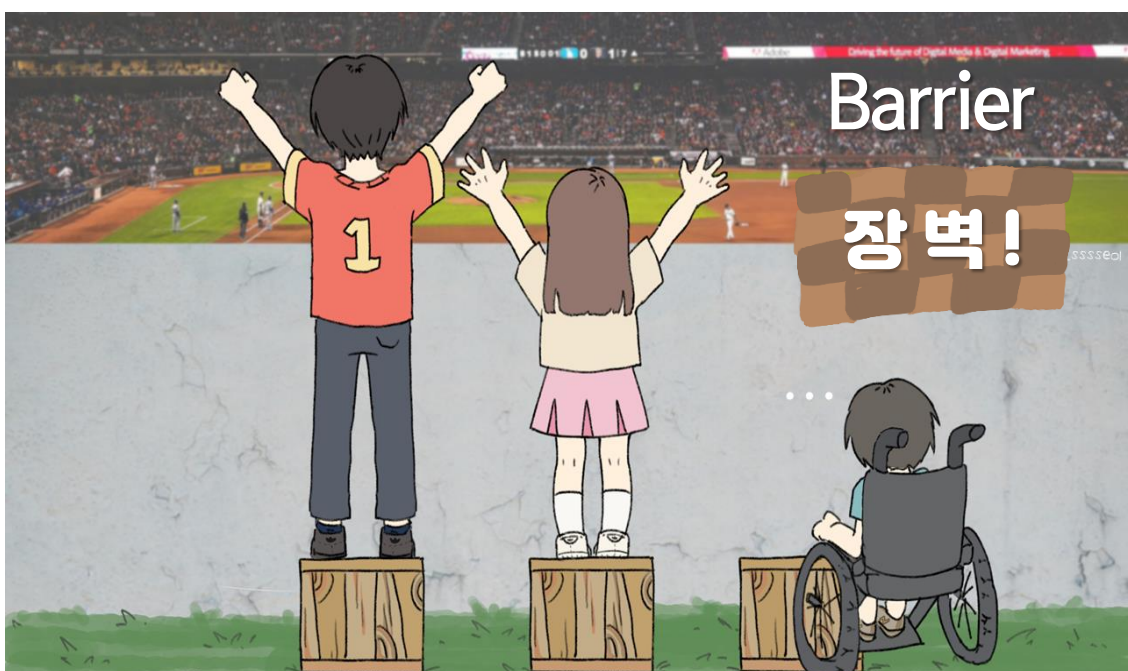
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한 상자 씩 나눠요!



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줍니다!



그렇다면,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.



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은 상자 위로 올라갈 기회조차 없어요.



경사로나 제공된다면?
누구나 자유롭게 야구관람을 할 수 있어요.



다음 시설은 누구에게 편리한걸까요? 생각해보고 동그라미(○)하세요.



〈엘리베이터, 승강기〉

